

第4世代언어와 UFO

이따금 해외토픽란을 장식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대개 결론은 없고, 끝내 「미확인」으로 신기함과 호기심만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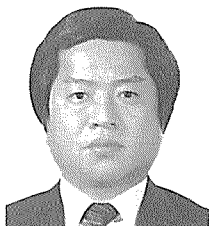
최근 情報産業協會 도움으로 UFO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제4세대언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4세대언어는, 아직 컴퓨터를 전문업으로 삼는 이들조차 미확인 UFO만큼이나 괴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美國, 日本 등지에서는 꽤나 많이 쓰고 있음에 비해 우리는 도입조차 망설이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있기 때문일까? 인간사회에는 세대가 있고 세대간에는 의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갈등도 있고 조화도 있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세계에도 세대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밟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정체가되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세대가 있다면 차라리 남보다 먼저 변화와 새로움을 수용하고 소화함이 앞서갈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제4세대언어에는 몇가지 구비조건이 있다. 첫째 배우기 쉬워야 한다. 배우기 어려우니 사람이 부족하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이 더디게 마련이다. 요즘 소프트웨어위기를 펴고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배우기 어렵다는 데 원인이있다고 본다. 둘째 생산성이 높아야한다. 「처음엔

목동균

쌍용컴퓨터 시스템사업1 부장



척척 잘해주더니 근자에는 더디기 짝이 없다」는 불평을 듣는 컴퓨터요원이 한 둘이겠는가? 5배이상의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4세대언어가 될 수 없다. 세제 비절차형 언어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짜증스러운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더욱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코볼이나 포트란같은 절차형언어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조건이라면 제2, 3세대 언어와의 원만한 의사소통문제이다. 인간사회에서 세대차에 의한 갈등이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요즈음 우리주변의 몇몇 4세대언어 중 구세대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파일(데이터 베이스)에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더러 있다. 이는 지금까지 애써 개발한 자산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 시작하려 든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제4세대언어 조건 중 정말 중요한 것은 기존 프로그램이나 파일과 자연스럽게 혼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